

알림

光州日報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58기 수습기자 및 경력사원 모집

권위와 전문의 광주일보가 수습 및 경력사원을 공채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속에 명석한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력으로 저널리스트의 길을 함께 갈 젊은이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립니다. 긍지와 보람의 광주일보와 함께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1.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방법	자격및 대상
수습기자 ○명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1977년 이후)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경력 사진기자 ○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종합일간지 사진기자 경력 2년 이상 인자
경력 전산직사원 ○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종합일간지 전산조판 경력자 또는 전산 그래픽 경력자

〈공통〉 해외여행 경력사유가 없는자, 남자는 병역필자
※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상식, 논문

2. 제출서류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1부 www.kwangju.co.kr 소정양식 다운로드 규격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이내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외국어 성적증명서(소지자에 한함)
△경력사진기자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사진설명을 첨부한 8페이지 내외의 보도사진 포트폴리오
△경력 전산직 사원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설명을 첨부한 4페이지 내외의 편집 또는 작품 포트폴리오

3. 전형 일정

전형방법	일	정
입사지원서 접수	11월 19일~12월 9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월 11일	개별통보
필기시험	12월 13일 (일요일)	오전 9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2월 14일	개별통보
면접	12월 16일 오전 10시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7일	광주일보 지면 및 개별통보

▷접수처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
광주일보사 총무부 (우편접수는 12월 9일 소인분 까지 유효)
▷필기시험 장소: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고

던져졌다”면서 “수정안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여론을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가느냐 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세종시 수정을 일방통보했다”며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장외집회를 열어

저지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범야권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친박계까지 아우르는 세종시 수정지지 연대를 선언했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도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고 충청권의 모든 시군을 순회하는 원안사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수 박람회장 조성 본격 시작

정총리 참석 오늘 기공식

정부차원 적극 지원 필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2년 6개월 앞두고 박람회장 조성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철도와 도로 등 주요 SOC 건설 예산이 축소되고,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시설 건립사업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이하 조직위)는 30일 오후 3시 박람회 개최예정지인 여

수 신항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지영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공식을 개최한다. 기공식 발파행사는 친환경 성격의 박람회에 맞춰, 기존의 폭약 대신 새로운 희망과 출발을 상징하는 물 분수와 함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에드빌론 피우기로 진행된다.

기공식 행사 이후에는 여수시민을 중심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 및 터 밭

기 한마당’ 행사가 열리게 된다.

정 총리는 기공식에서 남해안 선벨트와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박람회 관련 SOC사업에 산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전주~광양 간과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여수~순천 간 국도 건설 완공시점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늦춰져 관람객 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민자를 유치해 건설할 예정이던 호텔과 콘도 등 고급 숙박시설 건립사업이 분께도에 오르지 못해 박람회 기간동안 8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람객 수용에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공식이 열릴 여수 신항 일대에는 총 174만㎡의 부지에 국제관, 주제관, Big-O, 기업관 등 총 13개의 전시관과 함께 2천10세대 규모의 숙박시설인 엑스포 타운 등 다양한 박람회 행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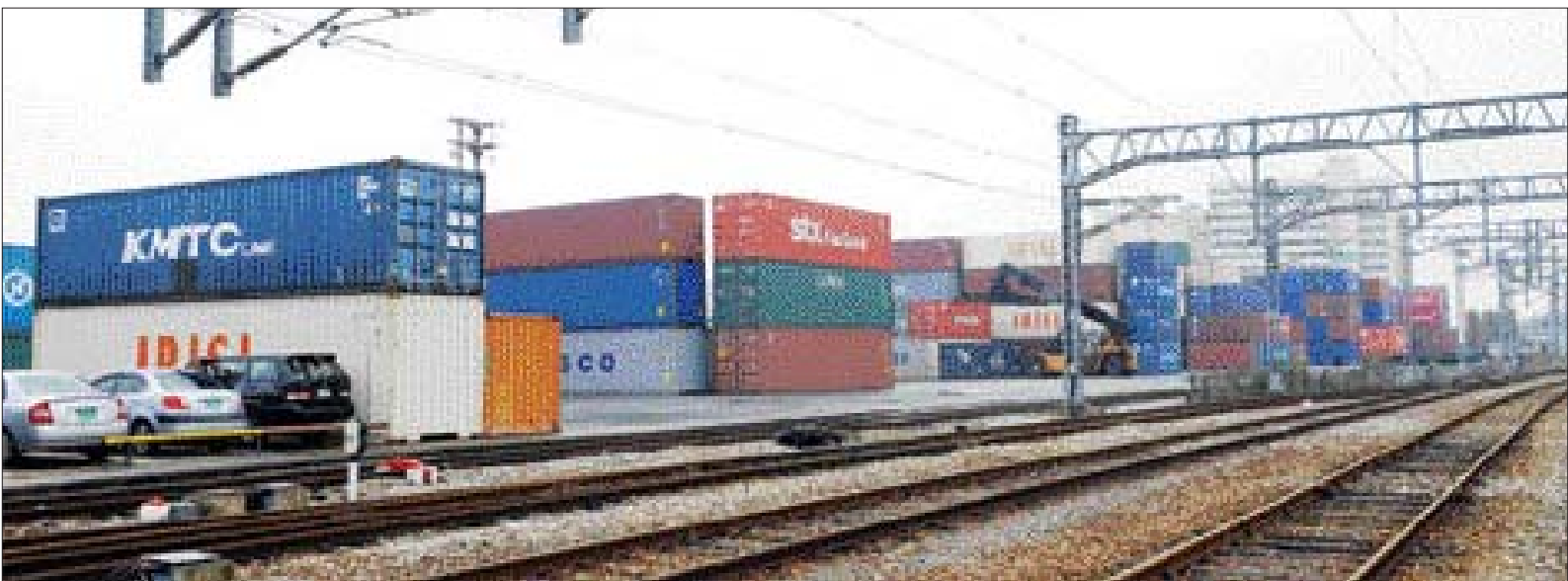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

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총 93일 동안 개최될 계획이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가하며, 약 8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지난 2007년 11월 2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유치가 확정됐으며, 그동안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국제관 및 주제관 국제설계 공모 등이 추진돼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철도파업에 쌓인 컨테이너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29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에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다.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전날보다 두 배가량 늘었으나 평상시의 절반도 안돼 물류 운송 차질은 여전했다.

▶관련기사 7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MB 대화’ 이후 세종시 극한 대치

與 민심 다독이기…野 장외투쟁키로

李대통령 “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식 천명하고 사과한 뒤 여권 주류 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공동전선을 형성, 맞대응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세종시 대치가 극한 상황으로 전개되

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밤 TV로 생중계된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 “(지난 대선 기간 중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며 “내가 이 안을 바꾸는 것

이 국가적으로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혼란이 오고 사회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가 정치적으로 편하기 위해 내일 국가가 불편한 일을 그대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타지역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세종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게 이곳으로 간다는 이런 일은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많은 지역에

서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국책 기업이 옮겨 가도록 했다”면서 “그런 기업이 세종시로 올 계획은 전혀 없고 정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은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다. 당정청이 하나가 돼 충청권과 야당, 친박계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

여권 관계자는 29일 “이 대통령이 수정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면서 “수정안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여론을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가느냐 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세종시 수정을 일방통보했다”며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장외집회를 열어

저지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범야권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친박계까지 아우르는 세종시 수정지지 연대를 선언했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도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고 충청권의 모든 시군을 순회하는 원안사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